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동양의 폐허를 성적 대상화하기: 모레노 두란의 『맘브루』, 콜롬비아 대대, 한국전쟁, 피카소, (마릴린) 먼로 독트린

모이세스 박

콜롬비아 작가 라파엘 움베르토 모레노 두란(Rafael Humberto Moreno-Durán, 1946~2005)의 소설 『맘브루』(Mambrú, 1996)는 한국전쟁 때 연합군의 일부로 파병되었던 약 1,5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콜롬비아 대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이 소설은 광범위한 역사적, 저널리즘적 조사의 결과로 작가는 참전군인 인터뷰와 증언으로 정보를 모았고, 과거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1990년대의 시점에서 허구적으로 재구성했다. 화자는 여섯 명이며, 그 중 한 명은 콜롬비아 역사학자로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해 ‘영웅’으로 죽은 인물이다. 역사학자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 무덤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 소설의 배경적 상황이며, 모든 화자의 목소리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연구를 회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에 대한 콜롬비아 국가 차원의 공식 관점과는 달리 작품은 소설 속 군인들의 영웅적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경험에 대한 음울하고 환멸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 글은 1954년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방문과 서울의 폐허를 보고 받기를 경험한 한 콜롬비아 병사의 고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과 피카소의 1951년 작 유화 「한국의 학살」도 비교해볼 것이다. 트라우마와 망각을 강요하는 성적 기호의 악용, 내가 ‘마릴린 먼로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헤게모니 권력이 어떻게 생명정치적인 차원으로 작동하는지 성찰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지도제작법과 체스

한반도 지도를 보면,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 메타포이다.

이 나라 지도를 유심히 보면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 [...] 태아 혹은 무릎 꿇은 사람, 혹은 서울쪽에 눈이 달려서 바다를 보고 있는 작은 돼지의 모습 같기도 하다 [...] 부산은 엉덩이쯤이어서 일본 바다에 똥을 누고 있고 [...] 이 세상의 모든 똥이 부산에 쌓이는 것 같다.(Mambrú, 110)¹⁾



한반도를 보는 공통적인 국가적 메타포, 호랑이 모습의 반도라는 국가적 상상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한반도를 발톱을 높이 쳐들고 적의 내장을 찢어놓을 태세의 호랑이 모습이라 여겼다. 그러나 콜롬비아 병사의 눈에는 반으로 잘린 이 호랑이가 작은 돼지나 태아, 혹은 무릎 꿇은 사람처럼 보인다. 화자 중 한 명은 (몸과 군대의) 육체적 메타포를 확장해 “콜롬비아인들은 자유를 위해

1) 이하에서는 괄호 속에 페이지만 표기한다.

싸우러 세계의 똥구멍에 간 하인들이었다”고 말한다.(120) 종속에 대한 이 수사는 성적인 암시, 특히 강간을 암시하며 소설 내내 등장한다. 한반도는 세계의 배설 장소였고, 동시에 성적인 침투의 장소이기도 했다.

거기에 또 다른 화자는 콜롬비아의 알레고리적 강간에 대해 콜롬비아가 “미군들의 압박과 필사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했던 메카시 상원의원의 히스테리 때문에 미국을 위해 여자들의 팬티를 끌어내렸다”고 묘사한다.(120) 이 성적인 지도의 알레고리를 확장해보면 한국은 두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중의 성폭력을 당해 반으로 갈라진 낙태된 태아이다. 반대되는 두 이데올로기는 강간 피해자-콜롬비아-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여러 화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이야기의 일면일 뿐이다. 많은 인물들은 폭력적인 군사 충돌이나 자신들이 이류 병사로서 견디는 무시보다 스스로 에로틱한 놀이에 빠져든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들의 증언은 특히, 일본과 하와이에서 여러 매춘업소를 찾은 연합군의 성적 행태를 솔직히 드러낸다. 소설에서 묘사되는 얼마 안 되는 군사 활동은 자세히 다뤄지는 성적 모험과 비교했을 때 피상적이거나 간과되고 있다. 왜 군인들은 전쟁의 치명적인 기억 너머의 성적 경험에 초점을 맞출까?

마릴린 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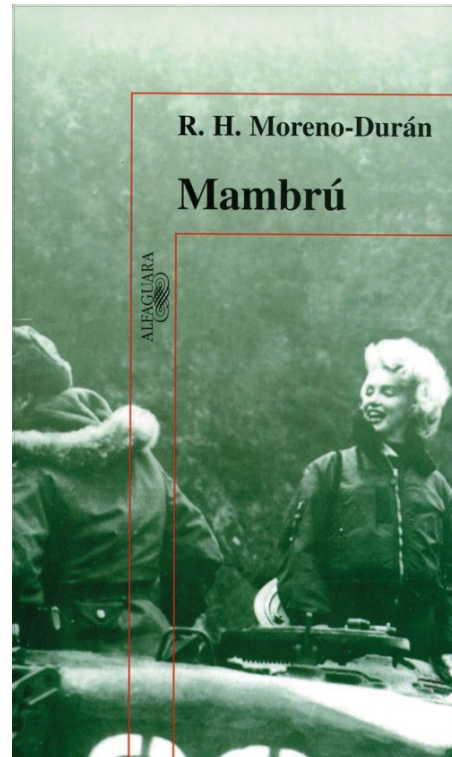
마릴린 먼로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가진 돈의 절반을 썼다. ‘사기를 높인다’는 표현은 군인들이 미친 성욕으로 요코하마의 매춘업소를 점령한 뒤 성욕을 해소하고 미쳐 날뛰 그 광란 뒤에 고위 장성들이 군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마릴린의 방문은 열광적이었고 [...] 우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전쟁 탱크 위에 올라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건지 짐작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공평하지 않아서 미군들이 먼로를 데려간 동안 우리 콜롬비아군은 로하스 피니야

육군중장의 방문에 만족해야 했다.(98)

마릴린 먼로는 군인들의 과도한 성적 욕망을 자극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욕망의 대상이었다. 이 기억의 지배는 군사적 사건들을 성적 열광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며, 트라우마와 폭력으로 어지럽게 포화상태가 된 정신은 먼로로 인해 더 과도한 포화상태가 된다. 아름다움과 잔혹함으로 가득한 마음은 고통을 숨기기 위해 진정되지 않는 성욕을 부추기는, 조작된 기억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무너져 내린다.

마릴린 먼로의 한국 방문을 담은 영상 자료를 보면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검정 드레스를 입고 다국적군이 입는 재킷을 걸치고 있다. 알파구아라 출판사가 펴낸 유일한 소설 판본의 표지를 보면 먼로는 책에서 묘사한 대로 탱크에서 미소 짓고 있고, 연합군 모두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재킷을 입고 있다. 이 유니폼으로 인해 먼로는 스스로를 연합군 전체와 동일시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그들을 참호로 이끌었던 정치적 이유보다 욕정으로 인해 동질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은 한국을 해방한다는 고귀한 동기보다 욕정으로 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우리는 단결해서 서 있다’라기보다 ‘우리는 단결해서 발기했다’). 유니폼은 금발에 흰 피부인 한 서양 여인에 대한 단결된 욕망을 표상한다.

역설적으로 전쟁은 “공포의 수도인 황폐한 서울에 흘러넘치는 전 세계의 똥”(89)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나, 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을 보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잘 알려진 평화주의 구호,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라’는 ‘전쟁터에서 사랑을 나눠라’로 다시 써졌다. 군복을 깨끗이 유지하고, 거리를 소독하고 시체를 안 보이도록 말끔히 치우는 등 끔찍한 현실을 잊기 위한 시도 속에서 트라우마와 성적 흥분은 뒤섞인다. 미국의 섹스심벌에 대한 욕망에 충성을 맹세하기라도 하듯 유니폼은 전체 연합군을 어느 정도 하나로 묶어준다. 그 결과 끔찍한 현실을 잊는 동시에 강렬한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은 부서진 잔해들을 떠올리게 하고, 미녀와 야수 둘 다를 기억하게 만든다. 성욕을 느끼게 했던 미녀와 결코 왕자로 변신하지 않을 야수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아무 것도 잊지 못하는 초능력 때문에 미치는 보르헤스 작품 속 푸네스처럼 군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는(둘 다 매우 공포스럽고 소름끼친다) 그들이 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며, 그것을 잊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능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미치게 만든다.

다른 국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은 폭탄의 대량 투입, 시민 살육, 고문, 포로처형, 탈영병 사형 등 여러 면에서 처참했다. 한 화자의 말처럼 콜롬비아 군인들 대부분은 이 처참함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 “전쟁의 진정한 공포는 시체가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마치 전쟁의 증거가 사라지고 사상자와 시체의 숫자가 줄어들기라도 하듯 무덤 파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소독을 하는 행위에 있다. 수치가 남지 않는 전쟁은 치밀하게 계산된 학살보다 더 잔인하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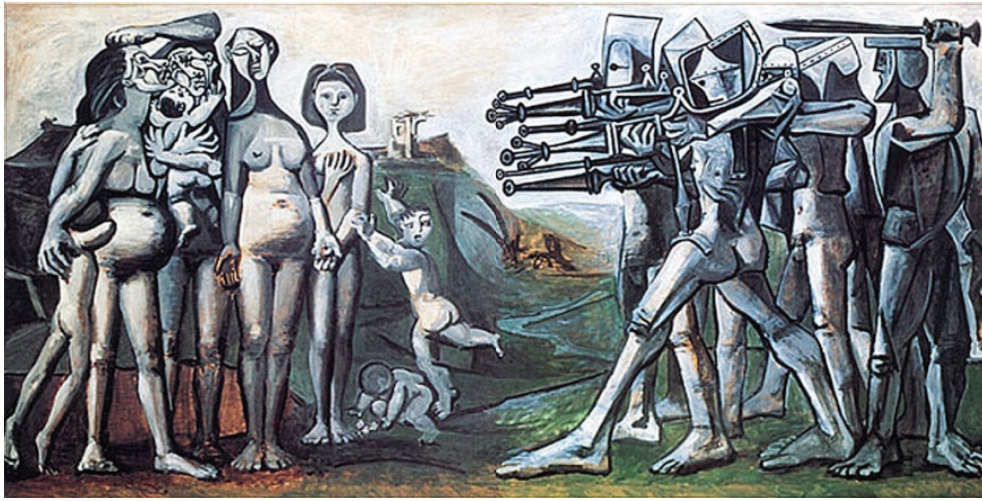
이 정화, 소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전쟁은 소독되고 청소되는가? 병사들의 시체는 사라지고, 여성들의 몸은 포르노그래피, 매춘, 혹은 쇼비지니스적 화려함의 형태로 드러나 “매춘업소로 달려가야만” 해소될 과도한 욕망을 만드는 판타지를 부추긴다. 성적 이미지와 욕망들은 전쟁의 공포를 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공포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동양의 폐허와 지속되는 발기

서울과 닮은 유일한 것은 [...] 악취와 쥐, 뒤틀린 철골들과 [...] 위엄 있는 궁궐의 귀신들은 히로시마의 이미지들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토록 많은 폐허를 보자 부끄럽게도 나는 누구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강하게 발기했다. 나는 폐허와 나의 급작스런 발기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89)

그리스 신화에서 프리아푸스는 가축, 과일나무, 정원, 남성 성기의 수호자인 마이너 남성 신이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고 영원히 발기한 페니스이며, 거기서 의학 용어 프리아피즘(발기지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프리아피즘은 병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모레노 두란은 프리아푸스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다. 헤라가 그에게 발기부전의 저주를 내렸지만 그는 다산의 존재들에 의해 길러졌다. 님프인 로티스가 술에 취했을 때 프리아푸스는 발기해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나귀 울음소리 때문에 발기상태가 사라졌고, 그는 분노해서 자기 페니스로 당나귀를 때려죽였다. 신들은 그에게 영원히 발기상태가 지속되고, 어떤 성교를 통해서도 충족되지 않는 욕정을 갖는 벌을 주었다. 이 신화를 소설에 대입시켜 군인들이 프리아푸스와 같은 벌을 받아서 과도한 정욕과 공포스런 기억을 동시에 갖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포스런 광경을 보고 성욕이 생겨날 수 있는가? 공포에 대처해나가면서 성적 갈망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신화 속 인물은 이 군인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적절하다. 사후 의학연구에 의하면 시체에서 이런 상태가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즉, 그 시체는 육체의 생명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기한다(Kaplan et al 55). 죽은 몸에서 부적절한 발기가 일어나는 간극은 이 병사의 경우와 어느 정도 비교할 만하다. 성적 반응은 성적인 맥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일어나는 곳과 죽음을 목도하는 곳에서 병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의 두 반대되는 충동-에로스와 타나토



파블로 피카소, 「한국의 학살」

스-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지독히 모호한 것이 된다.

피카소의 작품, 「한국의 학살」

위에 언급한 병사의 구절은 피카소의 작품 「한국의 학살」과 몇몇 대칭되는 구절이 있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기하학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드러낸다. 약하게 선이 그려진 삼각형과 타원형 형체들은 연약한 여성과 아이 희생자들을 나타내는 반면 강하고 각진 형상들은 공격적인 남성 군인들을 드러낸다. 총과 기사를 닮은 전진하는 형상들의 앞다리는 침공하는 군인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여자들의 서있는 자세는 항복을 의미한다. 여자들이 정지해있는 모습 배경에는 이미 파괴된 건물과 불이 일어난 것이 보이고, 이후에는 공공장소에서 시체를 ‘치워버리는’ 대량정화를 행할 듯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학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림속의 공격자들이 연합군 측이고, 여성과 아이들은 북한주민, 중국인, 러시아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를 희생자로 삼는 것은 사회주의 예술가들의

전형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피카소는 약한 동지들을 그렸다는 점 때문에 크게 비판 받았다.

미술 비평가 필리파 와(Phillippa Warr)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과 민간인들의 고통-벌거벗고 임신한 여인과 아이들이 곧 학살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 그림은 일반적인 군인과 전쟁의 야만성을 드러내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공격자들의 헬멧은 왜곡되어 있고, 그들의 무기는 창이나 총이 아니라 쫓대를 닮은 모호한 무기며, 무기를 사용한 폭력 외에도 성적 폭력을 암시하는 남근적 물체이다. 또한 공격자들은 헬멧을 쓰고 무기를 소지하고 벌거벗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페니스가 달려있지 않다. 많은 이들이 삶의 파괴자로서의 권능을 가진 군인들이 페니스를 총으로 대체해서 스스로를 거세하거나 거세당한 채 세상에서 다음 세대의 인간 생명을 없애고 있다고 해석을 내린다(www.allart.biz). 피카소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비평가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 그림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모레노 두란은 무감각한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 이 작품에 동조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몇몇 피카소 비평가들이 언급한 ‘전쟁이라는 백치 짓을 비웃는 태도’를 공유할 것이고, 『맘브루』는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오리엔탈리즘에 젖은 비평글이라면 한국전쟁을 다루면서 동양의 가난과 인간들의 취약한 상황을 불쌍하고 비정상적이기 보다는 성적으로 매력있다고 보는 교묘하고 사악한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전쟁은 포르노그래피적이다

실제 치명적이었던 전쟁처럼 소설 속 전쟁의 이미지, 서울의 폐허들은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의 어원에 충실하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πορνογραφία(pornographia)에서 왔는데, πόρνη (pornē: 창녀, pornea: 매춘),

γράφειν (graphein: 그림), 접미어 -ία (-ia: -한 상태)가 결합한 것으로 창녀들이나 매춘을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동양의 비참함—발가벗고 임신한 여성, 아버지 없는 아이들, 폐허—은 시체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교외에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사람들이 부재한 도시의 폐허가 주는 포르노그래피적인 암시를 드러내며 발기의 근원이 되었다. 에로틱한 자극의 맞은편 스펙트럼에는 마릴린 먼로의 포르노그래피적인 공연, 서구의 섹스 심벌의 매력과 그것을 찬양하는 태도가 있다. 이런 불균형적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학살 장소에서 발기를 일으키고 부적절한 반응을 유발할까?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을까?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에로스과 문명』에서 타나토스가 지배적이지 않은 맥락 속에서 성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문명은 사회주의 구조의 성공적 이식을 통해서 에로스가 쉽게 드러날 수 있고, 타나토스가 건강하게 억제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 체제든 전쟁 상황에서는 성과 죽음의 힘이 뒤섞이고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전쟁의 이미지들이 병리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고, 마릴린 먼로는 회고적으로 전쟁을 정당화한다. “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마릴린 먼로를 보았다.” 전쟁에 참가한 이익은 엉뚱하게도 마릴린 먼로를 볼 수 있었던 점이다.

연합군은 성적 자극과 성적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병사들을 격려해주며, 푸코가 말한 생명정치학(biopolitics)의 전체주의적인 효과들을 확장한다. 이 상황에서는 생명정치학이 몸뿐만 아니라 성과 미학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생명정치적 권력이 지도-체스판에 전략적으로 놓인 곳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군인들에게 매력적인 성인지, 무엇이 판타지와 욕망의 대상인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생명정치적 권력은 심지어 우리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마릴린 먼로를 통해 서구적 이미지는 미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양의 비참함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래서 군인들은 파괴를 지



한국전쟁에 참여한 콜롬비아 대대(Batallón Colombia)

켜보면서 발기하게 되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는 단지 쾌락지상주의적인 성교를 통해서 해소될 과도한 성적판타지를 만들어내며, 많은 군인들이 일본의 매춘업소로 달려가도록 만든다.

역사적 애도

좌파적 이상을 통해 변화를 희망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패배를 애도하는 것의 역할에 대한 이델버 아벨라르(Idelber Avelar)의 견해를 살펴보면, 한국 전쟁의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애도가 필요하다. 마릴린 먼로의 방문은 군인들을 위한 짧은 ‘보상’의 일부였지만 트라우마를 억누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세계 미디어에서 존재론적인 증명은 사라지고 성과 폭력이 과도하게 다뤄지지만 유흥은 절대

로 트라우마를 대체하지 못한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모레노 두란의 인터뷰에 의하면 콜롬비아 참전 군인들은 마릴린 먼로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모레노 두란은 말한다. “전쟁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내 세대 중 그 누구도 이토록 부조리한 전쟁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한국 전쟁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상기하는 것은 정당하다.”(Espinasa 280) 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시체를 없애는 것으로도, 그 공포를 강렬한 성적인 상징들로 대체하는 것으로도 정화할 수 없다.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부르기 전에 몇몇 역사가들이 제안했듯 더 많은 이야기들과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작가는 픽션을 통해 진실을 쓰고자 했고, 잊힌 전쟁의 현실이 쉽게 잊혀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글을 읽고 독자들은 완고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죽음과 삶에 대한 가장 강한 인간 본능이 분출되고 뒤엎졌던 과거를 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성적으로가 아니라 기형적으로 채워졌을 때 병적인 발기지속 장애가 인간의 조건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것이다. 마릴린 먼로 독트린은 미녀의 이미지들로 야수적인 것을 대체하고자 하며, 아름다움을 욕망하고 야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증오하고 야만을 욕망하는 진정한 악몽을 선사하는 미국산 몽정을 손쉽게 제공한다. 독자들의 숙고는 이러한 마릴린 먼로 독트린에 반대하는 도전이다.

[정승희 옮김]

참고문헌

- Asfar, Roy. "Marilyn Monroe." *Veterans Advantage*. Veterans Advantage Mag., 6 July 2006.
www.veteransadvantage.com/cms/content/marilyn-monroe,
 accessed 10 Oct. 2009.
- Avelar, Idelber. *Alegorías de la derrota: La ficción postdictatorial y el trabajo del duelo*. Santiago de Chile: Cuarto Propio, 2000.
- . *The Untimely Present: Postdictatorial Latin American Fiction and the Task of Mourning*. Durham: Duke UP, 1999.
- Benjamin, Walter. "The Storyteller."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1988.
- Borges, Jorge Luis. "Funes el memorioso." *Jorge Luis Borges: Obras completas*. Vol. I. Barcelona: Emecé, 1996. 485-90.
- Espinasa, José María. "Mambrú volvió de Corea." *R. H. Moreno-Durán, fantasía y verdad: valoración múltiple*. Ed. Luz Mary Giraldo. Bogotá: Unibiblos, 2005. 275-81.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London: Penguin, 1990.
- Freud, Sigmun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1989.
- .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Complete Works of Sigmund Freud*. Vol.14.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57. 237-58.
- Hurtado, César. "Entrevista a R. H. Moreno Durán." *Revista Universidad de Antioquia* 248 (2006): 130-34.
- Kaplan, Helen Singer, et al. *The Evaluation of Sexual Disorders: Psychological and Medical Aspects*. New York: Brunner/Mazel, 1983.
- Keen, Kirsten Hoving. "Picasso's Communist Interlude: The Murals of War and Peace." *The Burlington Magazine* 122. 928 (July 1980): 464.,
- Leeming, David. *The Oxford Companion to World Mythology*. Oxford: Oxford UP, 2004.
-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1997.
- Moreno-Durán, Rafael Humberto. *Mambrú*. Bogotá: Alfaguara, 1996.
- . "La augusta sílaba (sobre la jubilosa aventura de narrar)." *Encuentro*

- internacional: Narradores de esta América*, Lim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7. 193-207.
- Neruda, Pablo. *Las uvas y el viento*. Buenos Aires: Debolsillo, 2003.
- Ram rez-Orozco, Mario. "Erotismo, militarismo y mujeres en la carnavalización de la tragedia colombiana en El toque de Diana de R.H. Moreno-Durán." *Poligramas* 25 (2006): 154-84.
- Utley, Gregory GJ. "R. H. Moreno-Durán y la narrativa colombiana actual." *Literatura y cultura: Narrativa colombiana del siglo XXI: Hibridez y alteridades*. Bogota: Ministerio de Cultura, 2000. 116-136.
- Valencia Goelkel, Hernando. "Pasión nacional por el olvido." *R. H. Moreno-Durán, fantasía y verdad: valoración múltiple*. Ed. Luz Mary Giraldo. Bogota: Unibiblos, 2005. 281-83.
- Vásquez, Juan Gabriel. "Los nombres de la patria." *Boletín cultural y bibliográfico* 34.46 (1998): 113-116.
- Walther, Ingo F. *Pablo Picasso, 1881-1973: Genius of the Century*. Cologne: Taschen, 2000.
- Warr, Philippa. "Massacre in Korea - Picasso." *Art's in the Right Place*. 22 Jan. 2011. <http://artsintherightplace.wordpress.com/>, accessed 27 Feb. 2011.

모이세스 박(Moisés Park) - 미국 고든대학교 교수

정승희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